

“광주 5대 현안 추진에 협력해 달라”

윤장현 시장, 더민주 지도부 간담회

車100만대·경전선 전철화·‘임 행진곡’ 제창 건의

김종인 대표 “삼성 전기차 전장사업 유치” 약속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안철수 사립’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25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만나 시정 현안 추진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 한 식당에서 열린 더민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 “총선을 계기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사업 광주 유치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113km)의 전철화 사

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남구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에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또 다음달 36주년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김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과학기술훈원 방문해 ‘삼성 자동차 전장사업 유치’ 약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전기차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판가름할 프로젝트”라며 “전장사업을 유치하면 광주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영향으로 전략공천돼 당선돼 ‘안철수계’로 분류되지만 더민주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윤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적 행보보다 시정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각 정당과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입당설을 일축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 공무원 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에 대해 “감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 등 사법적 판단을 참고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광주가 모처럼 새로운 도전

을 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격정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노조가 전향적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자부가 요구한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대해 “오늘 당장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좀 더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또 중국 구용자동차의 광주 투자 유치가 잘 진행되면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와 관련해 윤 시장은 “롯데는 시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며 “법률 행정적 검토를 거쳐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민구단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FC에 롯데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검토해볼겠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세계에 알릴 것”

정동채 아셈문화장관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장

“아시아-유럽(ASEM·아셈) 문화장관회의는 광주를 전세계에 문화도시로 알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주의 문화 자산과 자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채 아셈문화장관 회의 성공개최 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문화장관회의 광주 개최 의의를 이같이 강조했다. 이 행사는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오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 53개국 문화장관, 대표단을 비롯해 취재진 등 600여명이 광주를 찾는다. 범 시민위원회는 대회 준비를 뒷받침하는 민간협의체다.

최근 위원장을 맡은 그는 “정부가 지난 2014년 광주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한 데 이어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광주에서 여는 것은 남다른 의의가 있다”며 “정부가 그만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시가 문화부와 협력해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는 아셈 행사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 시청 내 11개 실국, 20개 실과가 참여한 행정지원단을 구성했다.

그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관건은 시민 참여”라며 “문화 도시는 문화시민이 만드는 만큼 시민들이 행사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행사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정 위원장은 조언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는 문화전당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전시·공연 등)를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광주의 전승문화재인 고싸움 놀이를 문화전당광장에서 열고, 각종 문화장관들을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방안도 있다.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광주의 행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벤트입니다. 문화전당과 광주시가 협력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부와 시가 문화전당과 광주를 알리는 훌륭한 행사를 만들겠다는 공통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 위원장은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광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도, 세입 확충 평가 ‘우수’

재정인센티브 70억원 받아 ‘광역단체 유일’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재정이 열악한 도 재정확충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방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70억4300만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지방세징수율 제고(0.83%P)와 경상 세외 수입 확충(11억4900만원), 탄력세율 적용 등 세입확충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70억 43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받게 됐다.

전남도는 그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남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전남도와 전남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맺은 뒤 체납차량에 대한 합

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었다.

전남도는 또 지난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사상 최초로 2조원이 넘는 지방세를 거두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지난해 도세 1조5155억원을 거뒀는데, 이는 지난 2014년 도세 8849억원보다 1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시·군세는 전년대비 850억원이 늘어난 9511억원을 징수했다. 전남도 전체 지방세는 모두 2조262억원이다.

도세와 지방세가 각각 1조원·2조원 이상 징수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올해 3월~6월, 8월~9월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정한 뒤 지방세 체납액과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시 상품 불매 퍼포먼스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슴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옥시 상품 불매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범시민 캠페인 확대

광주시에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윤장현 시장과 클린지킴이, 시민 등 참가자 700여 명이 퍼포먼스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쓰레기 취약지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95개 동별 지역 주민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클린지킴이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민 역할을 재결집하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담은 ‘오매! 광주 참 좋아요!’ 슬로건 등 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최권열기자 cki@

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쓰레기 취약지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95개 동별 지역 주민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클린지킴이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시민 역할을 재결집하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담은 ‘오매! 광주 참 좋아요!’ 슬로건 등 광주사랑 문화시민운동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위암→대장암, 한국 남성암 1위 바뀐다

한국인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처음으로 올해 ‘위암’에서 ‘대장암’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립암센터 원규영 연구원 등은 국가 암 등록사업의 1999~2013년 암 발생기록과 통계청의 1993~2014년 암 사망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남성 대장암 신규 환자 수는 3만7698명으로 남성 위암 신규 환자 수(3만4331명)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암학회 영문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 최근호에 ‘2016 대한민국 암 유행률·치명률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게재됐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남성 1위 암은 출근 위암이었다. 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린다.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육식 위주로 변화하면서 대장암 유행



률의 증가가 올해에는 대장암이 1위에 오를 것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갑상선·유방·대장·위·폐 순으로 신규 암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예측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이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투어디서,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지요?

최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